

소집단교육

- Small-Group Teaching in Medical Education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백 상 호

의과대학 교육에서 “소집단교육”(small-group teaching)이라는 가르침의 형식은 전통적인 교육 방법인 “강의”(lecture)와 더불어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편화되어 왔으며(Walton, 1968 : Cadden, 1969 : Cox, 1976) 이제는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현장에서도 과히 낯설지 않은 교육 형태의 하나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소집단교육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적은 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의 강의”로 잘못 운용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강의가 의도하는 가장 큰 장점은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으로 많은 양의 지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있고 큰 단점은 선생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있다. 그런데 반하여 소집단교육에서는 정규 강의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몇가지 중요한 다른 측면의 학습을 학생들이 스스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장점이므로 이 귀중한 상황을 본래 의도한 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든다. 물론 소집단교육에도 단점이 있다. 그러나 소집단교육은 더욱 많은 그리고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선생들이 잘 활용만 한다면 의과대학에서의 학생 교육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이러한 형식의 교육을 이끌어 갈 선생들이 우선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서는 왜 소집단교육이 절실히 필요한지, 소집단교육의 장·단점이 어디에 있는지, 소집단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한편 이들을 기술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소집단의 실제 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익혀둔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소집단교육을 수행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1. 의과대학 교육에서 소집단교육은 왜 필요한가?

의과대학은 의사가 되게하기 위한 하나의 전문 직업 교육이다. 따라서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과정 중에서 졸업후 사회에 나가 의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현실과 가장 가까운 내용과 상황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과정(커리큘럼)이 되는 것이다. 의사가 갖추어야 할 필요한 내용은 너무나 많다. 크게 보아서 우선 전문적인 의학 지식(medical knowledges)이 있어야 하고, 질병을 진단,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임상수기(clinical skills)도 있어야 하며, 환자나 환자의 가족 또는 같은 의료팀의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대인기술(interpersonal skills)도 있어야 한다.

소집단교육은 대상 학생수가 적으므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성이기 때문에 이 점이 바로 소집단교육이 노리는 강점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배움의 과정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배움의 성취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그림 1).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곧 서로 사이에 활발한 교류(interaction)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여기에서 서로라고 하는 것은 선생과 학생, 학생과 학생사이 등 소집단의 모든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전부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교수와 대비한 학생의 수는 교류의 정도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인이 된다.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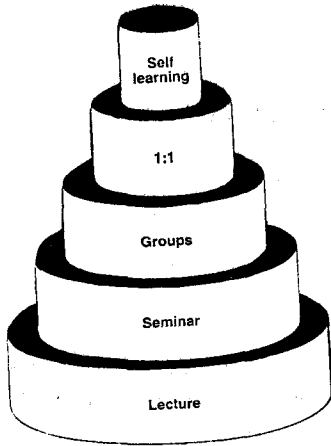


그림 1. 학습상황의 여러 형태. 위로 갈수록 학습자 중심은 공부형태가 되고 아래로 갈수록 선생 중심이 되는데 소집단 교육은 전체로 보면 중간 위치로서 구성원 사이에 교류하기 가장 알맞는 형태이다.

서 소집단은 이처럼 ‘교류’가 많은 것을 전제로 하는 학습절차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의사가 갖추어야 할 내용 중에서도 소집단 속에서 교류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지식 특히 분석적인 사고력의 훈련과 문제해결의 과정을 익히는 훈련(Elstein, 1978; Simpson, 1979),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훈련 및 구성원 서로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위하여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기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의학 교육 과정에서는 소집단교육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Rotem and Manzie, 1980).

1) 사고력의 훈련

환자들은 자신에게 생긴 어떤 신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를 찾아 온다. 그 때 임상 의사들은 환자가 호소하는 문제점이 과연 어디에서 생겼으며 왜 생긴 것인가를 알아내기 위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때 의사들은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하여 일단은 원인이 될만한 것을 상상해보거나 좀 더 나아가 “이것이 원인일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정보)를 찾는 절차(검사)를 거치게 되며, 그러한 비슷한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을 하나 하나 제거해 나가는 절차(감별진단)를 밟은 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최종 결론(진단)을 내리게 된다.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바로 이러한 과정 즉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고(question), 어떤 사실을 찾아내며(exploration), 그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analysis), 또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 있는 하나로 엮어서(synthesis), 그것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거나(evaluation) 또한 어떻게 이 사실을 실제로 응용할 것인가(implementation)를 깊이 생각하는(critical thinking) 단계를 거쳐 공부하는 데 소집단교육은 더할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 되므로 여러 사람이 협동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이러한 지적인 사고절차를 훈련시키는 데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2) 대화의 훈련

의사는 직업의 특성상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 환자와는 물론이고 환자 가족 또는 의료 팀의 다른 사람들과도 환자에 관하여 또는 진료에 관하여 말을 해 주고 말을 듣기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자신의 생각, 의견, 지식 등을 남에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표현하는 훈련이 절대로 필요하다. 소집단에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동안에 학생들은 대화의 기술(communication skills)을 익히게 된다. 즉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기도 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며, 때로는 좀 더 명확하게 말해 주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남이 조리 있게 표현하지 못한 것을 재구성하여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기도 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류를 통하여 원숙한 대화에 필요한 많은 기술적 및 감정적인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3) 협조의 훈련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 때로는 혼자 힘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요즘 같이 전문분야가 점점 세분화되어 가는 추세에서는 같은 의료 팀의 관련 분야 또는 의료보조 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자신도 남을 도와주는 일이

절실해짐으로써 이러한 협조를 통하여서 만이 긍정적으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사이의 원활한 협조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소집단 교육에서는 흔히 팀으로서의 공동과제가 주어지게 되니까 아무리 개인이 잘 해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집단 속의 다른 동료들도 다 같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양보와 희생도 할 줄 알아야 되며, 때로는 협상도 해야 하는 한마디로 다른 사람과 협조하는 정신이 절실히 필요해지고 따라서 이러한 관계 유지가 소집단 속에서 남과 더불어 학습을 진행하는 동안 몸매 뻗 수 있도록 훈련이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

2. 소집단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교육상황에서 “소집단”(small group)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진 많지 않은 수의 사람의 무리”를 말한다(Abrahamson, 1982). 여기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진다는 뜻은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주어진 어떤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서로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서로 사이에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노력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Dunphy, 1978). 구성원들이 이처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자면 소집단은 아무 의미없이 단순히 무리지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는 뜻이 된다. 소집단을 이루는 구성원의 수는 보통 6~12명이 가장 적합하며 4~6명이나 13~15명 사이는 소집단의 최소와 최대 한계이다. 4명 이하 또는 15명 이상이 되면 소집단으로서의 의미가 희박해진다.

3. 소집단교육의 목표

모든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한 과정이 끝나기 전에는 모르던 어떤 사실을 알게 하고 그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무엇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교육의 형식이 소집단교육이든 강의든 실습이든 궁극적인 목표는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이 형식을 선택하는 차이는 의학교육의 3대 내용인 지식영역(cognitive domain, knowledges);

수기영역(psychosomatic domain, motor skills), 태도영역(affective domain, attitudes) 중 어떤 방식의 학습이 목표에 도달하는데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소집단교육에서는 통상적인 강의에서 얻어지는 효과와는 다른 무엇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소집단교육의 목표가 된다. 한마디로 소집단교육에서는 같은 주제라도 강의에 비하여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으며, 선생과 학생과의 접촉이 더 많고 가까우며 친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 분량이 많지는 않아도 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룬 것보다도 관련지어 공부하게 하고 한편 학생들 개개인의 발달에 좀 더 세밀한 관심과 지도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따라서 소집단교육에서는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활동,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주제와 관련하여 깊이 있는 분석적인 생각을 하게하고 정해진 주제 이외에도 더 많은 것을 탐색해 낼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적으로는 책을 많이 읽게 권장하는가 하면 말을 조리 있고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목표 이외에도 무언가 좀 더 배우고자 하는 호기심을 유발시키거나 스스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자극을 주기도 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부수적인 목표도 숨어 있으며 자신의 학습에 학생 스스로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4. 소집단교육의 형식

소집단의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데에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식이 주어지는 데 하나는 세미나(seminar)라고 불리우는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토론(free discussion) 형식이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학생들의 공부에 선생이 얼마나 개입하느냐의 정도에 달려 있다. 즉 전체 진행과정이 선생중심(teacher-centered)으로 치우친 것이 세미나이고 진행이 보다 학생중심(student-centered)으로 치우치는 것이 자유토론이다.

세미나의 목표는 보다 더 명백하고 확실하다. 세미나에서는 미리 정해 놓은 주제가 발표되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학생들이 적절하게 찾아내어 정리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그러므로 세미나에서의

토론은 발표된 주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선생은 대개의 경우 소집단의 학생들이 미리 읽고 공부할 과제를 주거나 선생 자신이 특정 주제를 소개하기도 한다. 이에 반하여 자유토론은 학생들의 참여가 더욱 많이 요구되는 공부 형태이다. 즉 학생 자신이 주제를 논리 정연하게 작성하여 발표하고 소집단학습의 진행 과정 중에서 미리 정해진바가 없어도 학생들 스스로에게서 도출된 어떤 문제점을 다루기도 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두 형식 모두에서 공통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소집단의 구성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활발한 교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수가 적절한 수 이하거나 이상이 되면 원래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는 제한이 있다.

5. 소집단교육의 장단점

소집단교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면 무엇보다도 다른 동료 학생들과 교류를 하게 된다는 데 있다. 그렇게 됨으로써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때를 기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정도를 알게 되고 교류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며, 이미 다른 곳에서 얻어진 정보 즉 강의실, 실습실, 왜레 입원실 등 여러 곳에서 얻은 지식이나 기술, 태도 및 개인적으로 읽은 책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의미 있는 하나로 합성을 시킴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그 밖에도 학습의 현장에서 즉시 질문을 하거나 문제점을 제기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점도 많이 있다. 우선 활발한 토론을 하다 보면 그 날에 끝내야 할 내용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예기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데 그것이 그룹 전체의 문제일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을 하고 넘어가게 되겠지만 어느 한 사람에게 국한된 문제인 경우는 무관심 속에 묻혀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정상적인 토론과정에 참여하기가 어렵게 된다. 또 활발한 교류 가운데서도 말이 적은 내성적인 조용한 학생은 소집단 속에서 숨어

있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반대로 말이 많은 학생(선생 포함)은 진행을 독점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내성적인 학생 또는 혼자서 있기를 좋아하는 학생에게는 모두 부적합한 형식의 학습이다. 소집단학습은 그 진행 속도가 일반적으로 느리므로 우수한 학생에게는 지루하고 약한 학생은 따라가기가 벅찬 상황이 흔히 생기므로 자칫 모든 구성원의 만족을 다 못 채우는 경우도 생긴다. 소집단은 대형 강의실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비하여 교수 한 사람과 대비한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교수수가 많이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비싼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단점이다.

6. 소집단의 진행 과정

소집단은 구성이 되는 첫 단계에서부터 주어진 과업을 완결짓게 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정한 진행 과정을 거쳐가는 특성이 있다. 그 과정은 순서에 따라 형성기, 갈등기, 정상화기, 수행기, 종료기로 나눌 수 있으며(Dunphy, 1965), 그룹에 따라 어느 한 시기가 짧거나 길어질 수는 있어도 거의 어김없이 이 단계를 거쳐 마지막에 이르게 되므로 소집단을 이끌어 가는 선생은 이 형성 과정을 잘 이해해 두는 것이 학생들의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형성기(forming phase)

형성기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모이자마자 맨 처음에 이루어지는 상황으로서 우선 다른 사람의 감정과 태도를 탐색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려는 시기가 되는데 이 때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미지를 심거나 남의 인상을 받아들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기도 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잠정적인 아이디어나 생각나는 대로의 의견 표시를 하거나 앞으로 수행할 과제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정도의 초보 단계 임무를 수행한다. 이 시기는 한마디로 표현하여 불안감과 남에게 의지하려는 감정이 주가 되는 때이다.

2) 갈등기(storming phase)

형성 단계를 지나면 소집단 속에서의 크고 작은 충돌이 나타나는데 자신과 집단 사이, 나와 다른 구성원 사이에서 주로 리더쉽을 중심으로 한 갈등이거나

그룹에 대한 저항, 좌장에 대한 항거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로서 이 때는 적개심으로 표현되는 감정이 주가 된다. 의견과 입장이 흔히 갈라져 양극화되기 쉽고 이 때의 아이디어는 주로 과제 내용보다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으로서 과제에 대한 수행 정도는 일반적으로 극히 낮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부는 활발한 교류를 하나 일부는 남들이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을 팔짱끼고 관망을 하며 기다리기도 하는 시기이다.

3) 정상화기(norming phase)

이 시기는 구성원들이 서로 사이에 협조의 모범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로서 서로의 의견을 지지해주거나 불신은 점차 가라앉히면서 리더십에 대해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소집단의 결속이 생기는 때이며 주로 호의와 애정이 깊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가 아닌 대체할만한 관점, 견해, 의견 등을 공개적으로 주고 받음으로써 그룹에서 역할 분담, 목표와 절차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 본격적인 소집단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

4) 수행기(performing phase)

수행기에는 구성원들의 탄력성 있는 기능과 역할이 나타나며 일의 수행을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르익는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해결책이 나오고 구성원들의 노력과 능력이 일의 추진에 효과적으로 쓰이게 됨에 따라 의견의 일치를 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이 수행기는 한마디로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는 완숙된 시기이다.

5) 완성기(mourning phase)

소집단 활동의 마지막 시기로서 토의의 주제를 완결 짓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소집단으로서의 임무를 종결짓는 한편 미진한 부분을 마저 다듬고 한편으로는 기록 또는 보고의 준비를 갖추는 때이다. 이 시기는 그룹으로서의 성취감을 서로 축하하며 농담, 웃음, 유감, 철회 등의 표현으로 대인관계의 결끄러웠던 점을 잘 마무리짓는 시기로서 감정은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는 때이다.

7. 소집단의 운영 기술과 전략

소집단교육의 진행은 선생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순조롭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소집단을 이끌어 갈 일차적인 책임은 선생에게 있기 때문에 선생의 입장에서는 학습과정의 내용을 우선 잘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인 학생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소집단학습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진행 분위기를 수시로 파악함으로써 토론의 유도, 조정, 되먹임 및 견제 등으로 소집단을 적절히 관리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생의 임무를 위하여 필요한 몇 가지 실행 요령을 소개한다.

1) 구성원의 책임과 신뢰감 구축

소집단의 구성원은 그 그룹에 소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최종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하여는 우선 구성원 전원은 모두 학습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만이 이 형태의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주제에 관련하여 학습이 예습을 통하여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주제와 연관지어 깊게 생각을 하고 서로 사이에 효과적으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토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소집단이 공동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에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세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하여 선생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 구성원인 학생들이 서로를 잘 알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서로를 각자 소개하게 하거나 선생이 소개해 주도록 한다. 이것은 구성원이 일체감을 가지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데 있다. 그러나 늘 함께 공부하던 학급 동료일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해도 되지만 최소한 서로를 믿고 공동의 노력을 하도록 권고하는 말을 강조해야 된다. 나 하나만의 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함께 성취시켜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하여는 서로 사이에 협조와 회생과 이해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의식을 가지게 하는 데는 말로써 보다는 “조각모이기(broken square)” 같은 교육용 게임을 통하여 스스로 이러한 것을 인식하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소집단에서의 선생의 기본 임무

가) 선생의 말 수

선생은 될수록 말이 적어야 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생이 말을 많이 할수록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조용해지기 때문이다. 간혹 서로가 이야기를 하다가 침묵이 흐르는 경우가 있다. 이 때의 침묵은 매우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보통이지만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 침묵은 깨어지고 말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침묵의 시간에 학생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며 생각을 깊이 할수록 분석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대목에서는 잠깐의 시간을 주어 침묵 속에 모두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결코 시간의 낭비가 아니다.

나) 시작과 끝맺음

소집단학습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제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다. 즉 그 시간에 다루게 될 주제, 과제 또는 문제의 윤곽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학생들이 그 시간에 최종적으로 성취해야 할 학습목표(learning objectives)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준다. 그리고는 반드시 학생들이 그 말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간다. 즉 일단 주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이 이해가 되었으면 다음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본론으로 다룰 주제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clarify) 그 내용을 분석하며(analyze),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하도록(summarize)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습의 주체가 학생이며 추진을 학생들 자신이 그들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해나가게 하는 데 있다. 소집단의 학생들이 주제를 놓고 원활하게 다루어 나가게 하기 위하여는 미리 주제에 대한 과제를 주어 사전에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선생이 꼭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주어진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토론이 좀 연장되었으면 실을 때 및 그 날의 과제가 모두 성취되었을 때는 요약을 해주고 끝맺음을 알려준다.

다) 길잡이 역할

그러나 선생은 시작에서 끝까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진행의 방향을 잘 지켜 봐야 하며 중간 중간에 기본적인 문제 또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어 토론이

과열되어 다른 색길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라) 정보 제공

학생들이 스스로 머리를 쥐어짜며 노력을 해도 간혹 의식하지도 못한채 길을 잘못 들거나 매듭이 풀리지 않아 계속 고민스러운 상태에서 정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때는 슬그머니 필요한 정보를 흘려주는 것이 좋으며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얼른 눈치를 채고 레도수정을 하게 된다. 학습과정이 진행 중인 때는 설혹 잘못된 사실을 제기했어도 일단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중에 학생들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인식해서 고쳐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누가 중간 과정에 길을 잘못 들게 하였는지는 학생들 서로가 의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선생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이다.

3) 학생들의 역할 분배

공부할 과제를 다루어 나가는 데 있어 학생들 사이에는 다양한 역할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즉 어떤 사람은 매우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데 반하여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팔짱끼고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탄전을 부리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 역할을 고루 분담시키기 위하여 선생은 우선 이들의 행동을 잘 관찰하면서 누가 소심하고 수줍음을 잘 타는지 누가 진행을 독점하는지 또 누가 말만 많고 도움이 안 되는지 또한 누가 그 그룹에서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공헌을 안 하고 있는지를 구별해 두어야 한다. 한편 제시된 단편적인 지식을 모아 합성을 잘 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논쟁이 격렬해질 때 평화적으로 중재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으로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은 누구이며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혹 익살과 재치 있는 말로 좌중을 웃기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확인해 두었다고 이들을 적절한 때에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 역할 배분은 일차적으로는 학생들 스스로가 풀어나가게 하고 그것이 벽에 부딪쳐 진행이 순조롭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만 선생이 나서는데 좋다. 너무 나서서 진행 과정을 독점하는 학생이 있을 때는 적절히 제재를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무안하지 않게 조용히 간접적으로 견제를 하고 그래도 또 계속되면 강경한 정도를 좀 높여 제재

를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나누어 주게 한다. 이런 사람에게 때로는 '특수한 임무 가령 예를 들자면 진행의 기록을 맡긴다든가 하여 조용히 쓰는데 열중하게끔 함으로써 잠 재우는 방법이 통할 수도 있다.

반대로 너무 조용히 소극적인 자세로 있는 학생에게는 다른 사람이 대답한 것이나 발표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일로 시작하여 대화의 대열에 끌어들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반응을 하게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질문의 적절한 활용

진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간혹 선생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슬그머니 도전을 걸어도 좋다. 그러나 이 질문이 결코 위협적이어서는 안 되고 설사 틀린 답을 했다고 해도 무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하는 질문은 정답을 얻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하여 선생은 몇가지의 질문 사항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진행이 막힐 경우 길을 트기 위하여 이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반드시 쓸 필요는 없다.

반대로 학생들이 질문을 해 올 경우 선생은 이에 대하여 즉각 대답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질문을 좌중의 여러 사람에게 돌려 누군가가 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것 역시 될 수록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뜻도 있고 즉각적인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게끔 여운을 남겨 놓는다는 뜻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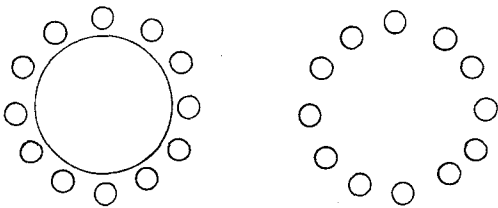


그림 2. 소집단 학습에서 가장 적절한 자리 배열. 모든 사람이 서로를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교류하기 쉽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배열 형태이다.

8. 소집단의 자리배열

소집단교육을 하는 데에는 활동할 장소의 선택과 정해진 장소 안에서의 적절한 자리의 배열을 고려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물리적인 자리의 배열이 사람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권위주의적인 배열을 피하고 선생과 학생, 학생들 서로 사이가 균등한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데 기본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장소를 선택할 때는 인원 수를 고려에 넣고 소집단에서 사용할 각종 시청각 보조기기와 스크린, 암막 등의 설치 여부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강의실, 회의실, 세미나실, 선생의 방, 실험실의 한 모퉁이 또는 병동의 한 모퉁이 등 어디든지 선택될 수 있으나 한 가지는 외부로부터의 소음이 차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안에서의 책상과 의자의 배열 또한 중요한 데 가장 좋은 것은 둥근 테이블 또는 사각의 테이블에 모든 사람들이 둘러앉아 서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즉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생의 자리는 절대로 별도의 장소나 높이 또는 별도의 책상을 따로 마련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둘러앉은 속의 한 자리에 같이 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그림 2).

9. 끝맺는 말

소집단학습은 지식분야의 학습에도 효과가 크지만 특히 태도 분야의 교육에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Walton, 1968)는 점에서 의학교육에서는 적극 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육방법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의 교육방법이 상황에 따라서는 그 효과가 클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순전히 소집단을 선생이 어떻게 운용해 가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소집단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생은 첫째로 주제 내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둘째, 학생들 개개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셋째, 적절한 물리적 환경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집단을 이끌어가는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References

1. Abrahamson, S. : Definition of group, Cited from the printed materials for education workshop, USC, 1982.
2. Cadden, J.J. et al : Growth in medical students through group process. Amer. J. Psych. 126 : 862, 1969.
3. Cox, R. and Jaues, D. : Small group discussion. In Improving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University Teaching Methods Unit, Institute of Education, London, 1976.
4. Dunphy, D. : Tuckman, B.W., Development sequence in small groups, Psychological Bulletin, 1965.
5. Dunphy, D. : Educational process in small groups, Education materials for MHPed course, 1978.
6. Elstein, A.S., Shulman, L.S. and Sprafka, S.A. : Medical Problem Solving : An Analysis of Clinical Reasoning, Harvard Univrsity Press, Boston, 1978.
7. Rotem, A. and Manzie, P. : How to use small groups in medical education. Medical Teacher. 2 : 80-87, 1980.
8. Simpson, M.A. : Problem-based learning in medicine, General Practice International, 1977, 2 : 63-66.
9. Walton, H.J. : An experimental study of different methods for teaching medical students.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 1968, 61 : 109-112.